

## 2016년 7월 31일(주일) 말씀과 묵상(6) "구속사적 관점에서"(행 17:22-31)

### <도입>

EH Carr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역사는 사실들의 열거가 아니고, 항상 진보를 향하지도 않는다. 과거의 창고에 저장된 많은 사건 중 특정 사실을 고집어내는 역사가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많은 부분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레위기, 신명기, 시편, 잠언 등을 통해 영적 메시지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들도 역사적 정황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역사를 떠나 신비주의나 오직 정신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 [1] 구속사(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사무엘하인데, 9, 10 장 등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이야기로서 재미는 있지만, 중대한 가르침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윤리적 판단과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 결국 성경의 가르침의 의도와 빛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선물로 주신 생명 세계의 부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구속사(구원사)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관여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통찰을 얻고 기록한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에 맞추어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의 영적 가르침을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설교에서 이 구속사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24 절). 그러나 인간은 회개하여야 할 존재(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다(타락, 30 절).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31 후)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정하셨다(31 전)'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창조 - 타락 - 구원 - 완성, 이 네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나의 내적/외적 상황이나 사건에 구속사적 관점을 적용한다면,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존재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타락)**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의미를 찾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완성**을 향하여 치유 받고 수정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읽는 다윗 이야기(8월 매일 성경 사무엘하)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도록 지상에서 선택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아들)에게 고통 당하며 도망 다녔고, 시므이로부터 맹비난과 저주를 받는 등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다윗의 이런 수치의 사건들을 열거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구원/완성시키시기 위해 무엇을 바라셨고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에 맞서지 않는 자세, 정죄하지 않는 인격, 반역자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긍휼, 자신을 저주하는 말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폭넓은 그릇과 해석...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다윗 왕국을 최고의 왕국으로 완성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시 19:22-24 참고). 이러한 다윗의 구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 [3] 구원의 작은 역사가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역사로 인식하는 눈을 갖는 작은 역사가로서 나의 과거의 어떤 사건을 들추어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거부하지 않고 정직(자신의 느낌에 대한 고백)과 용기를 가지고 대면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어떤 특정 사건을 끄집어내어 다시 대면하는 것은 나의 인생과 화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감당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생각났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와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을 묵상할 때, '나쁜 놈 시므이, 바보 같은 다윗'라고 하는데 멈추지 말고, 자신의 유사 사건이 생각난다면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수동적이고 무력함 속에 감추어진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나의 옛 사건에 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해' 라는 거부 가운데 자기를 방어하며 애쓰고 살았지만(옛 사람), 이제는 이런 일을 다시 당한다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대면할 수 있다고 용기를 갖는 것이죠(새 사람). 그러면 그것은 옛날 상처를 한 걸음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사랑)를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묵상 한번으로 온전한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 때마다 이런 기회가 오면 10, 20 번이라도 끄집어내서 성령께서 치유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삶의 방식(life style)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아픔과 분노가 올라왔기 때문에 방어하는 옛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성령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구속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로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돌보며 하나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 < 결론 >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진정으로 화해되어 어떤 사건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재해석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 나눔의 질문 >

1.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본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2. 나의 인생을 구속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즉, 당신의 근원은 무엇이며(하나님의 창조), 오늘 삶의 정황은 어떠하며, 그 정황에서의 구원의 의미와 미래의 완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새 삶이 무엇인지 조명해볼 수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묵상을 요함).
3. 누군가 나를 정죄하며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시다. 이 사건을 윤리적인 이성의 잣대로 해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반면 이것을 구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과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묵상을 통하여 나의 삶을 작은 역사로 보고 '구속사적 역사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